순천, 내년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3416명 모집

순천시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어르신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총 3416명의 어르신을 모집하며 6개 수행기관(공공1, 민간5)이 참여한다.

참여 자격은 순천시 거주 어르신으로 공익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니어클럽(061-745-6090), 대한노인회(061-744-3791), 순천YWCA(061-744-7990) 등으로 문의하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면 공익형은 11개월 동안 활동하며, 공익형 참여자는 월 27만원,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는 월 71만원,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소정의 급여를 받게 된다.

여수,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15일까지 사용 당부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한 '희망바우처 카드' 사용 기간이 오는 15일 종료된다며, 기한 내 사용을 당부했다.

'희망바우처 카드'는 연간 8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한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여수시에 등록된 공연, 전시, 도서, 음반, 체육용품등 다양한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용처는 운영시스템(푸르미) 홈페이지(http://yshv.purmee.kr)나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여수시 문화예술과(☎061-659-47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희망바우처 사용 기간이 12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서는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낯선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희망바우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면서 "15일 이후에는 잔액이 자동 소멸되므로 서둘러 사용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구례, 교육부 '내년도 미래교육지구' 선정

4년 연속 민·관·학 협력체제 구축… 지역교육 생태계 활력 기대

구례군은 구례교육지원청과 공동 추진하는 교육부 2023년도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구례군은 2020년도 처음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4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미래교육지구는 지역 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민·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이에 구례군은 구례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신청해 서류 및 대면심사를 거쳐 지난 6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구례군은 구례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3년째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마을 연계 구례脈 잇기 교육과정 운영▲친환경 생태교육 및 여순사건 바로알기 마을교과서 제작▲지역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 위기 학생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3년에는 협력 자치 나눔으로 온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구례교육 공동체라는 목표 아래 ▲구례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구례 脈 잇기 교육과정 운영 ▲구례 脈 미래교육 지원 ▲온 마을 배움터 조성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구례군의 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아이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손을 맞잡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오광범 기자

곡성,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대상' 수상

1억 원 확보… 작년 최우수상 이어 올해 수상 쾌거

곡성군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곡성군은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평가'에서 대상과 함께 1억원의 사업비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곡성군은 개방형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를 실현 등을 역점 시책으로 선정하고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찾아가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워크숍,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곡성군 지역활동가 양성·운영, 마을 사업 메뉴판을 제작·배포했다.

전남도 우수 으뜸마을로는 오산 관음사마을, 석곡 유평마을, 오곡 오지 5구마을 3개소가 선정됐으며 내년 추가사업비 200만 원을 지원한다.

오산 관음사마을은 마을 입구를 타일 벽화로 조성했으며 마을 갤러리를 만들어 관음사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석곡면 유평마을은 방치됐던 마을회관을 마을 골동품전시관으로 만들었으며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골동품을 전시하고 있다.

지역의 대표 관광지 섬진강기차마을에 위치한 오곡면 오지마을은 꽃잔디를 식재해 특색있는 마을로 변화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현재 지역 92개 마을이 으뜸마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웃 간 정이 넘치는 마을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주민자치 문화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곡성=이상석 기자

연말 맞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구매 줄이어

종교·사회단체 등 3개소 2500만 원 상당 입장권 사전 구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3곳에서 2500만 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8일, 도사동 더헤윰 웨딩컨벤션에서 개최된 순천불교 사암연합회 송년회 및 신도연합회 창립법회에서 스님, 신도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인 회장 관문스님(동화사)이 1천만 원 상당의 박람회 입장권 구매증서를 전달했다.

9일에는 아모르웨딩컨벤션에서 남북지역교류 순천시협의회가 5백만 원, 같은 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에서도 김태희 지회장이 1천만 원 상당의 박람회 입장권 구매증서를 전달하면서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입장권 구매 행렬에 힘을 보탰다.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은 "2023정원박람회에 보내주신 각계각층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광양, 올해 10대 뉴스 선정 설문조사

오는 19일까지 광양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광양시는 올 한해 추진한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 중 화제가 됐던 10대 뉴스 선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12월 8~19일(12일간) 광양시청 홈페이지(gwangyang.go.kr) '시민참여-설문조사'에서 진행되며, 광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문은 시가 선정한 20개 주요 뉴스 중 1인당 10개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득표수가 높은 10건의 뉴스를 올해 10대 뉴스로 선정할 예정이다.

10대 뉴스 후보는 ▲광양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대통령 표창 수상 ▲「배알도 섬 정원」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안심 관광지 등극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글로벌 관광축제 '2022 광양 K-POP 페스티벌' 개최 ▲광양시, 2022년 정부합동평가 '종합 1위' 등극 ▲광양시, 제5차 예비문화도시 지정 ▲광양시,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공모 선정 ▲광양시, 성황스포츠센터 개관 ▲광양시, '2022 대한민국 SNS 대상' 대상 수상 ▲광양시,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확정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 민선 8기 정인화 광양시장 취임 ▲광양시 과학영농관 준공, 통합형 과학영농시대 열다 ▲여순사건 74주기 합동추념식, 광양에서 열려 ▲광양시, '2022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광양시, 남해안 남중권 중소기업연수원 유치 확정 ▲광양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획득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정부 예산 반영 확정 ▲광양시 가족문화센터 완공 ▲광양시, 포스코홀딩스㈜와 5751억 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광양시, 산림청 녹색도시 우수사례 '차단숲' 최우수상 수상 등이다.

시는 오는 20일 설문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발표하며, 선정된 10대 뉴스 관련 사진 전시회를 12월 26~31일 시청 1층 현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광양=조순익 기자

보성, 혁신 어벤져스 성과발표대회

활동 성과 발표·공유… 소통하는 공직문화 조성

보성군은 지난 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혁신 어벤져스 성과발표대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과발표대회에는 군 혁신 어벤져스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팀별 혁신 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가졌다.

총 4팀의 혁신 어벤져스는 가족과 함께한 day, 112캠페인 등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며 선진 지방행정을 선도하는 공직문화 조성 방안을 공유했다.

박우육 부군수는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혁신 어벤져스가 공직의 패러다임 변화에 앞장서 군정 혁신을 이끌고 있다면서 유연하고 소통하는 공직문화를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데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 혁신 어벤져스'는 MZ세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상향적 회의체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구성원들은 혁신 아이디어 발굴,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등 군정 혁신을 논의하며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다.

/보성=장국도 기자